마태복음 27장 57-66절 말씀

①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②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③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